

#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잠언 3:1-8, 고린도전서 2:10-14

최정웅 목사님

## 서론

어떤 목사님 가정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 모든 지출을 줄이자고 의논했다고 한다. 특히 새 옷을 사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사모님이 새 옷을 입고 나오셨다고 한다. “여보, 우리가 새 옷을 사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 옷을 보는 순간에 사탄이 유혹하더라고요.” “그러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따르지 말았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뒤로 물러갔는데, 뒤에서 봐도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웃음) 물론 예쁜 옷을 사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한복음 16:33에 말씀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없다고 하지 않았다. 요한일서 3:13에는 그래서 요한이 현장의 성도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미 말씀했다. 이 세상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상과 타락의 길로 가지 않는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다.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속에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버려진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로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4:18에 말씀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을 이기고 살릴 남은 자인 것이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외로운 자, 버려진 자가 되지만,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 성령이 누구시며, 성령이 무엇을 하시며, 그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잠언 3장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 1. 성령이 누구신가?

첫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성령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다.

(1) 성령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19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셨다. 고린도후서 13:13이 우리가 축도 때 듣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시다. 삼위일체는 심오하기 때문에, 설명을 자꾸 해서 알아듣게 하려면 이단이 된다. 2천 년 동안 설명하는 여러 이론이 있었지만 나도 딱 이거다 하는 이론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다.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이다.

(2)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속에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7:38-39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하셨다. 요한복음 3:3-5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다. 로마서 8:2는 말씀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이다. 성령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 2.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혹은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주역으로 사역하셨던 시대고, 신약의 사복음서는 성자 예수님이 주역으로 사역하셨던 시대이며,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 주역으로 사역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고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사역이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성령의 사역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 안에 계시다(내주). 그리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 세 가지다.

(1)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신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이것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바로 성령의 내주와 동행이다. 요한복음 14:16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셨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때는 소련 사람, 미국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러시아에, 미국에, 유럽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다 하신 것이다. 성령은 모든 믿는 성도 속에 함께 하신다. 고린도전서 3:16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왜 성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가 된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늘 함께 계시다. 그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 영원한 보증을 언약으로 꼭 붙잡아라. 이것을 늘 인정해야 한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만리장천에 있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2) 지금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세밀하게,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다. 요한복음 14:26에 말씀했다. 모든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다. 요한복음 16:13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알리실 것이라고 했다. 로마서 8:28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고 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 증거가 전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다. 사도행전 16장에,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였다. 그래서 그 인도를 따라갔더니 마게도나의 문이 열리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믿어야 한다. 인정하라는 말이 그 말이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3)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지금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가는 곳마다 성령충만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표적이 계속 나타났다.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마가다 락방에 임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스테반 같은 사람은 완전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가는 곳마다 점술, 무속, 우상이 무너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사실 이 시대는 의학, 의술이 많이 발전했다. 그러니까 약 먹으면 되고 의사 만나면 되는데 뭘 기도하느냐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시대에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광주의 어떤 권사님은 아이가 자폐였는데, 이 아이가 복덩어리다. 복음을 붙잡았는데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일반인과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었다고 한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 안 되는 사업이 되게도 하시고 병자가 일어나게도 하시며 그런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계신다. 현대인은 지식과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한다. 그래서 기

도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란다.

### 3.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잠언 3장을 통해 묵상해야 할 부분이다.

(1) 잠언 3:1을 보니까,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성령인도를 받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내 손을 잡고 가고 하는 것을 인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다 주셨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다. 시편 119:11에 말씀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6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수아 1:7-8에 보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게 된다.” 말씀을 떠나지 마라. 시편 119:105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했다.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각인시키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성령인도다. 그래서 말씀 속에 다 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경도 하라. 많이 읽어라.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한 절 읽고 시작해 보라.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에 중요하다.

(2) 잠언 3:5-6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온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해 주신다. 지도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명철과 지혜를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해야 한다. 여호와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라.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인정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

(3) 잠언 3:19-10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삶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예배 속에서 실천되고 특히 헌금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한다. 말씀이 생각 속에 각인되고, 실천을 통해서 뿌리내리면, 삶에서 체질이 되어서 결국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성령의 인도다. 나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구약을 읽어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다 내 것이라고 하겠다. 초태생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그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 것으로 하겠다고 하겠다. 그레 레위기, 민수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있다. 처음 익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나는 성경에서 배웠다. 처음 얻은 것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진짜 그렇다. 내가 교회를 세 곳 섬겼는데, 첫 번째는 포천 용정교회였다. 첫 달 생활비를 받았더니 5천 원이 들었다. 50년 전이지만 그때도 5천 원은 5천 원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받아서 세어보지도 않았다. 그것을 뒤집어서, ‘첫 예물이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일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드렸다. 회계 집사님이 보니까 한 달 동안 저 양반은 뭘 먹고 살 생각인가, 혼자도 아닌데, 부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배경이 되는 무학교회 장로님을 전화를 했다. “전도사가 생활비를 전부 봉투 채로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알았다 하고 월요일 새벽에 왔다. 아침 일찍 와서 나를 보자고 하는 것이다. “전도사님, 이게 적지만, 먹고 살아야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드리는 거니까 꼭 쓰세요” 열어 보니까 5천 원이 들었다. 나는 그렇게 뭘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뭘 먹고 살 것인지, 굶을 것인지 계산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드린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의정부에서도, 여기에서도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시더라. 회계 맡은 장로님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과분한 예배당을 지어서 빛이 좀 있을 뿐이지, 경상비는 모자란 적이 없었다. 남기는 했을지언정 모자랐던 적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헌신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왜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 놓고 내가 책임지려고 애쓰는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음이 생기시기 바란다. 일전에 청년들이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했다고 하더라. 청년대학부를 담당하는 목사님께 양복을 해 드렸다는 것이다. 애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오면, 뭘 이런 말씀이 있느냐 하지 말고 순종해 보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명령이기 때문이다.

(4) 11-12절에 보니까,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다. 징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와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모든 축복과 문제 속에서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인도가 있는지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5) 21절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것들이 네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눈에서 지혜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 집중해 보라는 것이다. 집중의 포인트를 찾는 것이다. 말씀 집중의 포인트, 기도 집중의 포인트를 찾도록 도전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레 성경이다.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것은 깡패가 하는 말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신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비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체험하며 살아야 한다. 그레 야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힘이 있다.

### 결론

(1) 말씀을 마치려 한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3오늘(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을 시작하시기 바란다. 잠언 3:3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21절에는,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했다.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꼭 만들라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 마치고 나면 바로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몇 사람씩 모여서 오늘 메시지를 두고 잠깐, 5분이라도 포럼을 나뉘라.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내가 못 잡은 것을 가지게 된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각 인하는 나의 시간을 꼭 가질 필요가 있다.

(2)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낮과 밤 시간이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24시의 응답으로 연결되게 된다.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참 감사하다.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바쁘게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다.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리라.” 23-24절의 말씀이다. 24시 지혜를 누리는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한다.

(3)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세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게 된다. 31절에 말씀했다.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완전한 복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3오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24시 여호와 의 복을 누리는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되라는 말씀이다. “너는 범사에 그를, 성령을 인정하라.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해 주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한 구간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